

2018 가족주일

예수님의 사랑이면 어떤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아니라 가문

하나님의 은총은 개인을 넘어 가문에 흐른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은총이 세대를 관통해 흐른다.

[요엘 1:3]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Tell it to your children, and let your children tell it to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to the next generation.)

결국 축복받은 가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당대 뿐만이 아니라 세대에 흐르는 가문이다. 내 당대에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내 후세에 그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반대로 내 당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세대에 축복이 있다면 이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오늘 나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 내 자녀에게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구체적으로 내 당에 어려웠던 일들은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내 당대에 있었던 축복은 내 후손의 대에 이르러 더 증가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명심할 것은 '저주의 대물림은 끊어지고, 축복의 대물림이 있도록 해야한다'.

2. 요나단 - 하나님의 은총을 흐르게 하는 자

(1) 용사 요나단

[사무엘상 14:13-15]

13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죽였다.

14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죽인 사람은 스무 명쯤 되었다.

15 이 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로, 다윗의 절친한 친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유력한 후보자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왕의 지위를 다윗에게 양도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나단 보다 다윗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요나단은 당대에 가장 용감한 장수였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므마스 가파른 계곡을 기어올라 블레셋군 20명을 죽였다. 이 승리로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게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군의 사기를 북돋아 승리하게 되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도 왕이 되기에 합당한 조건의 인물이었다.

(2)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아버지

요나단의 인물 됨됨이는 훌륭하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아픔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문제가 많은 아버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보며 얼마나 많이 실망하며 괴로워 했겠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끊기고 다윗에게 넘어간 사실을 아는 요나단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막혔던지 아니면 앞으로 끊어질 하나님의 은총을 보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요나단의 선택

ㄱ) 다윗을 향한 희생

[사무엘상 18:3-4]

3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4 자기가 입고 있던 겹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먼저는 이미 다윗에게로 흐른 하나님의 은총을 억울해하지 않았다. 요나단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한 지도자였음에 틀림없다. 나와 우리 가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다윗을 세웠다. 만약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 자신의 권위를 다윗에게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었을 것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총을 흐르게 하는 자였다.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통해 임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다윗에게 흐르게 하였다. 자신의 어깨를 내어서 다윗이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이다. 나를 희생해서 나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일. 내가 발판이 되어 사람을 세워주는 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사랑안에 있는 자기희생 때문이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게 하는 일은 내가 '희생'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 동료가, 내 자녀가, 제자가 주인공이 되도록 섬기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은 이웃을 위해 나를 깨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다. 그러면 산다. 모두가 산다. 움켜쥐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나누면 자유가 임하고 그것에 기적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다.

ㄴ) 아버지를 위한 희생

[사무엘상 31:2]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요나단의 인생에 짐이었으며 저주였다.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아버지였다. 자기친구 다윗을 질투하는 못난 아버지였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며, 무당에 점을 치는 최악의 지도자인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사울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았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못난 아버지 사울을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사울의 가문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이다. 그런데 이런 못난 아버지 사울의 마지막을 누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침몰해가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외모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줍은 사울의 첫 모습을 보라. 그리고 왕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라. 백성들의 연호를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과 기름부음이 있었던 사울을 생각해보라. 이런 사울 옆에 아무도 없다. 가장 어려운 때이다. 아무도 없다. 그 옆에 누가 있는가? 요나단이 있다. 못난 아버지 였지만 결국 최후를 지켜주는 사람은 요나단이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요나단은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다윗이 이미 강력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지긋지긋한 아버지를 저주하며 이제 내 인생 찾았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함께 최후를 맞이한다.

부족한 아버지를 향해 죽는 요나단의 이 모습이 사랑의 본질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을 줄 때는 그에 합당한 사람에게 준다. 밑빠진 독에 절대 물을 붓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 결정'이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 내 기준, 내 관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사랑도 변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사랑할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사랑할만한 조건을 찾으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조건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이다. 다른 어떤이유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다. 조건없는 사랑은 결국 모든 아픔을 치유한다. 마지막 사울은 자신 때문에 죽는 요나단을 바라보며 정말 회개했을 것이다. 욕망과, 권력과, 힘만을 향해 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이 후회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아버지와 마지막을 함께 한 요나단을 보며 그는 치유 받았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요나단으로 인해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았다.

(4) 아픈 가족들

오늘날 가족안에 아픔이 있다. 깨어짐이 있다. 상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물림 된다. 그런데 요나단처럼 일방적으로 조건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그로인해 결국 그 가정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회복될 것이고, 치유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증거가 있다.

3. 아버지 요나단 - 요나단으로 인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

[사무엘하 9:7-9]

7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겉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8 므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9 다윗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일렀다.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너의 상전의 손자인 므비보셋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된 요나단을 생각해보자.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가문안에 있을 비극의 결말을 보았을 것이다. 비극의 결말을 본 요나단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마 아들 므비보셋이었을 것이다.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가문의 비극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총이 자신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결국 그는 다윗과 아버지 사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인생을 선택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덩그러니 남겨진 역적의 가문 므비보셋의 인생은, 므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개나 다름없는 인생'이었다. 이런 므비보셋의 인생에 은총이 찾아온다. 다윗왕은 므비보셋을 불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고 말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던 사울의 가문의 부활이다. 요나단의 조건없는 사랑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사울의 가문안에 머물게 하였다.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장면이다. 결국 므비보셋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 9절에 보니 사울과 그의 온 집안이 가졌던 모든 것이 므비보셋에게 주어졌다고 나온다. 할렐루야.

가족주일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문에 흐르도록 해야한다. 아무리 부족하고 깨어진 가정이어도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오늘 나를 통해 그 회복과, 축복과, 은총이 다시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그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보여준 요나단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자. '예수님의 사랑이면 어떤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